

Wycliffe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늘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며 현지에 점점 더 잘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곳에 정착을 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적응’

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도시에서 생활했던 저로서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익숙치 않은 ‘소리’ 들은 때때로 제가 새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온 동네 사방에서 들려오는 닭 소리, 그 뒤를 이어서 들려오는 돼지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에 이제 아주 익숙해 졌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사고 파는 행상인의 외침 소리 (옥수수, 필리핀 떡, 고철, 플라스틱등), 또한 사람들보다 차가 우선인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울리는 경적소리, 동네마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외치는 소리 등은 일상 생활에서 매일 들을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현지의 소리 들입니다.

이에 한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온 동네를 깨우며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음악과 노래 소리입니다. 이곳에서도 소위 ‘가라오케’ 라고 하는 장비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각종 행사 및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더위에 지친 까닭에 조금이라도 잠을 설치면 피곤이 가중 되기에, 밤이 되면 동네의 분위기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 소리가 들려올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밤이면 그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잠을 설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들려오는 이들이 부르는 노

래 소리에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두들 수준 이상으로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른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서 풍부한 성량으로 자유롭게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높고 낮은 음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동요등으로 제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지만, 이곳에서는 남녀노소가 특정 노래 종류의 제한 없이 모두 함께 즐겁게 부르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노래 소리가 들리는 밤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 노래 소리가 소음이 아닌 자장가 정도로 여겨져서 잘 부르는 노래에 감탄을 하며 잠에 빠집니다.

이곳 주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Hot Issue는 1.권투, 2.농구 3.전국 노래 자랑 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 거리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엄마가 아이들을 재우며 부르는 노래 소리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몸을 들썩이며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수준 이상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섬기는 교회에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6~8명, 남자 2~4명 정도의 소규모 찬양대입니다. 피아노로 반주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리 반주가 녹음 된 Tape이나 CD를 틀고 찬양을 합니다. 매주 보이는 얼굴도 있지만, 매주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고정 지휘자도 있지만 대원들이 돌아가며 지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휘자 없이 찬양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조금은 영성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사실은 매주 이들의 찬양을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감사가 넘치는 풍부한 감성과 표정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때면 예배가 이미 기쁨으로 넘쳐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고통 가운데 영롱한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살아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한 기대를 헤아려 보니다. (박인호)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 113:3)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욥기’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의 하나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42장이나 되는 비교적 긴 내용 중에서 욥의 시련에 관한 내용이 1장에서 2장까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장에서 37장에 이르는 내용의 대부분은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와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욥기의 80% 이상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욥의 친구들은 변변치 못해서 쉽게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욥의 시련으로 인해 욥과 함께 칠 일 칠 야를 한 마음으로 같이 안타까워 해 줄 수 있는 욥의 정말 진실된 친구들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 2:12-13)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성경의 그 어느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도 내용이 떨어지지 않는 구구절절이 주옥 같은 내용인 것을 발견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귀절에 밑줄을 그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구 액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시작은 미약 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는 말씀도 다름 아닌 빌닷의 논쟁 중의 말씀으로 저로서는 밑줄을 쳐야 할지, 말지 망서려 지는 부분의 한 예인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사단의 물질적인 시험과 빼와 살을 치는 시험과 아내

의 저주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았지만, 칠 일 칠 야를 함께하며 고통을 함께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을 통해 마침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따라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되는 모습을 보면서, 욥기의 1-2장과 같은 ‘환경의 시험’도 절박하지만, 3-37장에 이르는 ‘사람을 통한 시험’이 더욱 더 처절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이 시험이 사단 같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 악인으로 부터의 시험이 아니라, 나의 아픔에 칠 일 칠 야를 같이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을 구별하여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요즘 보기 힘든 진실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 42:8)”**

혹시 나는 나에게 들려지는 ‘진정에 가득찬 말’ 중에서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우매하고 옳지 못한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지 돌아봅니다. (박인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